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힘내라 대한민국

2020년 9월 24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9월 23일(수) 오후 6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0. 9. 23(수)	담당부서	산업정책과 기업정책팀
담당과장	산업정책과 기업정책팀 정승혜 팀장(044-203-4230)	담 당 자	박형태 사무관 (044-203-4232)
	반도체디스플레이과 조익노 과장(044-203-4270)		임용기 사무관 (044-203-4335)
	기계로봇장비과 황병소 과장(044-203-4310)		조민웅 사무관 (044-203-4318)
	자동차항공과 이민우 과장(044-203-4320)		정종윤 사무관 (044-203-4329)
	바이오융합산업과 김재준 과장(044-203-4390)		윤경민 사무관 (044-203-4393)
	전력산업과 윤요한 과장(044-203-5150)		권주현 사무관 (044-203-5157)
전담기관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 김진곡 팀장(02-6050-316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활력지원 TF 정용욱 팀장(02-6009-3520)	

◇ 디스플레이·자동차 등 15개 기업 사업재편계획 승인

○ 대·중견·중소기업 상생형 디스플레이 사업재편(액정표시장치→차세대 디스플레이) 승인 (6개)

○ '17년 이후 3년 만에 대기업 사업재편 승인

○ 지난 6월에 이어 친환경 미래차 전환 6개 자동차 부품기업도 추가 승인

◇ 「선제적 사업재편 활성화 방안」 발표

○ 산업생태계 혁신 관점에서 업종·지역·상생형 기업군 단위 사업재편 추진

○ 계획수립부터 이행점검 및 애로해소까지 사업재편 전주기 지원 강화

○ 자금(정책금융, 기금), 연구개발('21년 100억원(정부안)), 사업화('21년 20억원(정부안)) 등 특전 보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제27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9.23일)에서 **신산업진출 유형 15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였다.

※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총 20명, 설치근거 : 기업활력법 제6조)
- 위원장(공동) : **정승일 산업부 차관**(주재), 이홍 광운대 교수
- 심의위원 :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 (※ 당연직 : 기재부·공정위·금융위 1급)

○ 이로써 기업활력법 **누적 승인기업은 총 143개,** 지난해 11월 개정법 시행 이후 **신산업진출 유형 기업은 총 29개 업체**로 늘어나게 되었다.

* 사업재편 승인건수(개) : ('16) 15 →('17) 51 → ('18) 34 → ('19) 9 → **('20.1~9월) 34**

□ 이번 **승인기업 15개사**는 사업재편 기간(신산업진출: 5년) 동안, 새로운 사업 분야 진출을 통해 **약 2,500여 명**의 **신규고용**과 **1조 5천억여 원**의 **신규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 제27차 사업재편위원회 승인기업 개요 >

구 분	분야	기업명	규모	기존 사업	신규 사업
<테마1> 디스플레이 기업群 (6) LCD → 차세대 디스플레이	패널	삼성디스플레이	대	LCD, 중소형 OLED	차세대 QD 디스플레이
	프레임	인지디스플레이	중견	TV 샤시프레임	차세대 디스플레이 보텀 플레이트
		파인디앤씨	중소	디스플레이 모듈	차세대 디스플레이 베젤 플레이트
	프레임	파인테크닉스		모바일기기 기구부품	폴더블폰 디스플레이 힌지
	소재·부품	엘티씨		디스플레이 전자재료	차세대 디스플레이 격벽재료
	소재·부품	회명산업		디스플레이 공정용 세정제	차세대 디스플레이 공정용 세정제
<테마2> 자동차부품 기업群 (6) 내연차 → 친환경차	초소형전기차	우수AMS	중견	엔진·변속기 부품	초소형전기차
	하우징	동서기공		파워트레인(구동축)	구동모터 하우징
	구동모듈	인 팩		케이블 제품	전기차 제동 시스템
	구동모듈	서진오토모티브		변속기 부품	전기차 감속기
	배터리	서진산업		차체 및 샤시	배터리 케이스
	배터리	인팩이피엠	중소	자동차 부품	배터리 케이스
기 타 신산업 (3)	바이오	삼양이노캠	중견	석유계플라스틱 원료	바이오플라스틱 원료
	가스터빈	엔알텍	중소	소음저감 설비	가스터빈 흡기/배기 시스템
	바이오	카라바스		여행전시서비스	바이오 화장품

【 27차 사업재편 주요특징 및 기업소개 】

□ **정책적 중요성이 큰 혁신 주제를 선정하여, 기업군 단위로 수요를 발굴**하는 **"주제형 사업재편" 두 번째***로 **디스플레이 분야(액정표시장치 → 차세대 디스플레이) 6개 기업(대 1·중견 1·중소 4)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였다.

* 제26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서 최초 도입 ('20.6.23, 내연기관차 →친환경차 생태계)

○ **삼성디스플레이**가 **차세대 퀀텀닷(QD) 디스플레이에 본격 투자를 추진**함에 따라 **관련 소재·부품 협력업체들이 시장진출에 동참**하기로 결정하면서 **대·중견·중소기업이 함께 사업재편을 신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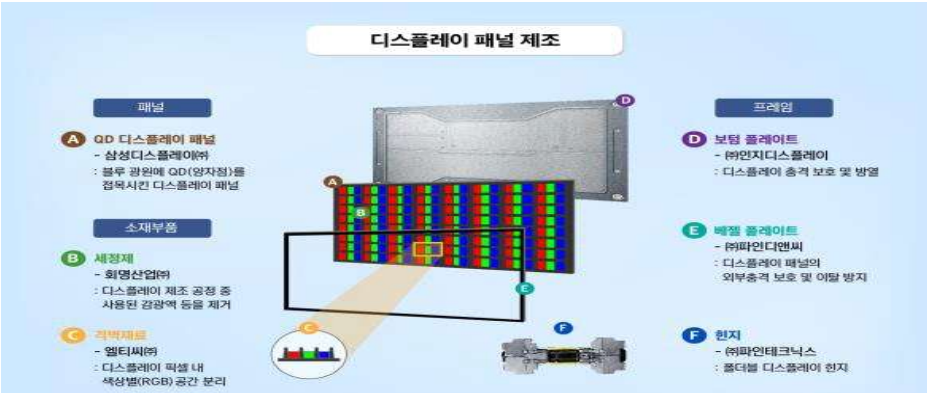
□ **대기업이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것**은 **'17.7월 이후 3년 만으로,**

○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날 사업재편계획심의를 통해 "세계최초로 퀀텀닷 디스플레이 신시장 생태계를 개척해 나가는 과정**인 만큼 **사업재편을 함께 추진하는 중견·중소기업**에 제조공정 비법 공유, 시스템 구축 지원 등 **상생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디스플레이 산업**은 2004년 이후 세계 점유율 1위를 지속유지('19년 기준)하고 있으나, 최근 **수요 감소와 함께 경쟁국의 공격적인 액정표시장치(LCD) 생산 및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분야의 기술 추격 등으로 중대한 국면**을 맞고 있다.

○ 이에 **차별화되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잉공급 시장인 액정표시장치** 생산을 종료하고 고**부가가치 차세대 퀀텀닷 디스플레이로 본격 진출하게 되었다.**

< 차세대 디스플레이 진출 산업생태계 사업재편 승인 현황 >



□ 한편, **친환경차로 진출하는 자동차 부품기업 6개사의 사업재편 계획을 추가로 승인**하였다.

○ 제26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6.24일)부터 **산업 정책적 중요도가 큰 혁신 주제를 선정, 관련 기업군의 수요를 적극 발굴**하는 **"산업생태계 동반 사업재편"을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 첫 번째 주제로 선정한 **"내연기관차→친환경차" 관련 자동차 부품기업 6개사의 사업재편계획을 일괄 승인**한 바 있다.

○ 이에 힘입어 **자동차 부품기업의 기활법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자동차 부품 산업생태계의 사업재편 움직임이 확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선제적 사업재편 활성화 대책"(사업재편2.0 전략) 발표】

□ 이날 사업재편위원회에서는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선제적 사업재편 활성화 대책**(사업재편2.0)"을 의결·발표하였다.

○ 지난 제26차 위원회에서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이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번 대책**을 **확정**하였다.

1. 추진배경

□ **4차 산업혁명, 국제 공급망 재편 등 세계 산업지형이 급변**하는 가운데 **국가 간·기업 간 신산업 생태계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 **선제적 사업 구성 조정 및 군살 제거**를 통한 **산업구조의 혁신**은 위기를 맞은 **산업의 생존과 지속성장을 위해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 우리의 강점인 **뛰어난 복원력과 제조·디지털 기반을 활용하여 과감한 혁신을 추진한다면** "**새로운 기회의 장(場)"**이 열릴 수 있다.

○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이미 **구조조정 단계 진입** 이후에는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과 회생 노력에도 **기업의 생존가능성 저하되므로, 선제적 사업재편이 산업생태계 전반에 확산될 필요**가 있다.

2. 주요내용

◇ 사업재편이 개별기업 발전은 물론 **산업생태계 혁신의 전기**가 되도록 ①**기업군 단위 업종·지역·상생형 수요 발굴,** ② 계획수립 → 승인 → 이행점검 **전과정**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③**특전도 보강**

① (수요발굴) 개별기업을 넘어 **산업생태계 동반 사업재편 촉진, 적용 확대**

○ **(산업생태계 접근)**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신산업 육성*, 한국판 뉴딜 등 핵심정책과 연결**해 업종·지역·상생형 **"사업재편 주제"를 선정**하여 수요 집중 발굴

* (신산업) ①내연기관 → 미래차, ②액정표시장치 → 차세대 유기발광다이오드, ③전통에너지 → 친환경에너지

○ **(문턱제거) 코로나19 충격**이 큰 **업종**을 **과잉공급 상태**로 **적극 인정**

② (지원체계) 사업재편 **전 과정 지원강화, 부처 협력을 통한 맞춤 지원**

○ **(전주기 지원)** 단순승인을 넘어 **승인계획수립 단계 자문**과 함께 **승인 후 이행점검 및 애로해소** 지원

○ **(제도협력) 사업전환(중기부) 제도와 연계**해 가장 적합한 지원 추진*

* (신청·승인단계) 양 제도 승인요건을 함께 검토 → 더 유리한 제도 적용
* (지원단계) 사업재편 연구개발, 사업전환 정책자금 등 지원사업 교차적용 등 협력 강화

③ (특전) 사업재편 위험 경감, 성과창출을 위해 **실질적 지원강화**

○ **(자금)** 현장의 수요가 많은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재편 지원기금"**('21~)**을 신규로 조성****

* "혁신기업 1,000"(3년 40조원) 지원 대상으로 적극 추천, 산은 우대대출(금리 0.7%p↓), 신보 우대보증(요율 0.2%p↓), 중진공 정책자금 지원 등

** '21년 200억 원 + 디지털 산업혁신펀드, 한국형 뉴딜펀드 등 활용

○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승인기업 전용 연구개발(100억원)" 및 "신산업 초기 사업화*(20억원)" 신규 지원 ('21~)

* 사업재편 종합 자문, 애로기술 해결, 시제품 제작, 평가·인증, 장비활용 등
  - 분야별 사업재편 지원 자문단을 구성하여, 현장 밀착형 자문을 병행

○ **(중장기)** 세제지원 강화, 사업재편을 "제2의 창업"으로 활성화 방안 검토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제27차 위원회를 주재한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대·중견·중소기업이 함께 추진하는 **디스플레이 사업재편이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우리기업들이 독보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 "**사업재편 도전은 많은 위험**이 따르지만, **기업과 산업이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길**이므로, 이번 **사업재편 활성화 대책을 계기로 산업생태계 전반에 변화의 움직임이 확산되기를 기대**"된다고 언급하였다.

□ 산업부는 **정책적 중요도**가 큰 **업종**(주력산업의 디지털·그린뉴딜 등), **지역 등 산업생태계 단위 사업재편 주제를 지속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는 한편,

○ **기업들의 사업재편 추진과정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청취함으로써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 기업활력법 사업재편지원사업 문의 및 정보 제공

- 산업부 기업정책팀 : 044) 203-4232
- 대한상공회의소「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 02) 6050-3162
- 한국산업기술진흥원「기업활력지원 태스크포스(TF)」: 02) 6009-3520
- 기업활력법 종합포털 : www.oneshot.or.kr

【붙 임】 1. 제27차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승인기업 주요 내용
2. 선제적 사업재편 활성화 대책 (별첨)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팀 박형태 사무관(044-203-42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제27차 사업재편위원회 승인기업 주요 내용

1. LCD → 차세대 디스플레이 진출 기업 (6개)

삼성디스플레이(주) ※ 대기업, ('19년) 매출액 270,885억원, 고용 23,115명

○ **(배경)** 디스플레이 시장의 저성장 기조 고착화 및 중국 경쟁사의 공격적 생산능력 확대 등으로 정체된 대형 LCD 제조사업을 종료하고 **성장성이 높은 차세대 QD 디스플레이 분야로 진출**

○ **(주요내용)** 차별화된 **QD 디스플레이** 양산을 위한 연구개발 및 설비 구축

○ **(기대효과)** 차세대 디스플레이 사업 진출로 **산업생태계 내 투자**와 **고용**을 **활성화**하고 **디스플레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

㈜인지디스플레이 ※ 중견기업, ('19년) 매출액 1,217억원, 고용 448명

○ **(배경) 차세대 디스플레이 진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LCD에서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로 사업재편을 추진

○ **(주요내용)** 기존 플레이트보다 **얇고, 방열, 강도**가 우수한 **차세대 QD 디스플레이용 보팀 플레이트** 개발 및 양산설비 구축

○ **(기대효과) QD 디스플레이 산업 확대 기여**와 더불어, 제품·기술 경쟁력 확보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시 **경쟁우위 선점**을 기대

㈜파인디앤씨 ※ 중소기업, ('19년) 매출액 723억원, 고용 179명

○ **(배경)** LCD 부품 제조 기업으로 최근 **디스플레이 시장**이 LCD에서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전환**되고 있음에 따라 동 분야로 **사업재편이 불가피**

○ **(주요내용)** 차세대 디스플레이용 **외장형 베젤 플레이트용 금형**과 **제조기술**을 개발하고 양산을 위한 설비를 도입할 예정

○ **(기대효과)**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로 성공적으로 진출함에 따라 **디스플레이 부품 분야**에서 **경쟁력을 제고**

㈜파인테크닉스 ※ 중소기업, ('19년) 매출액 1,342억원, 고용 196명

○ **(배경) 폴더블폰 수요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객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개선된 폴더블폰 디스플레이용 힌지 개발**에 착수

○ **(주요내용)** 폴더블폰 디스플레이를 **보다 유연하게** 접을 수 있고 **수명을 높일 수 있는 디스플레이 힌지**를 개발하고 양산설비를 구축

○ **(기대효과)** 동 힌지를 활용한 **폴더블폰**으로 **사용자**의 **만족도를 개선**하고 **폴더블폰**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엘티씨(주) ※ 중소기업, ('19년) 매출액 568억원, 고용 161명

○ **(배경)** 차세대 디스플레이 투자가 본격화됨에 따라 **일본 수입**에 **의존해왔던 격벽재료의 국산화 요구가 대두**

○ **(주요내용) OLED 및 QD 디스플레이용 격벽재료** 기술**개발** 및 양산설비 투자

○ **(기대효과)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양산 과정**에서 **핵심부품의 수입 의존도를 완화**하고 **소재부품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회명산업(주) ※ 중소기업, ('19년) 매출액 470억원, 고용 62명

○ **(배경)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양산이 본격화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그에 걸맞은 디스플레이 **공정용 세정제 개발 필요성**이 대두

○ **(주요내용)** OLED 및 QD 디스플레이용 **고순도 및 유독물이 미포함된 감광액 표면박리제 세정제**를 개발하고 이를 양산하기 위한 설비를 도입

○ **(기대효과)** 차세대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수율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2. 내연차 부품 → 수소·전기차 진출 기업 (6개)

우수AMS㈜ ※ 중견기업, ('19년) 매출액 2,073억원, 고용 348명

○ **(배경)** 자동차 변속기 및 엔진 부품을 제조하는 전문기업으로 최근 **환경규제 강화, 친환경차 수요 증가 전망**으로 **초소형전기차 기업**을 **인수**

○ **(주요내용) 모터, 인버터 등 구동모듈 연구·개발**을 통해 **초소형전기차**의 **성능**과 **효율**을 **개선**하고 **초소형전기차**(완성차) **및 전기차부품 시장에 본격 진출**

○ **(기대효과) 초소형 전기차**의 **상용화 촉진**을 통해 국민편의 증대, 환경 개선과 함께 V2G 활용 등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

㈜동서기공 ※ 중견기업, ('19년) 매출액 2,884억원, 고용 630명

○ **(배경)** 저압/중력 주조, 고압/고진공 다이캐스팅 공법 등 **뿌리산업인 주조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중견기업

○ **(주요내용)**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패러다임이 넘어가면서, 매출액 둔화 등으로 인하여 **전기차 구동모터 하우징 설계 기술 개발 및 하우징 납품 예정**

○ **(기대효과)** 전기차 구동모터 수명을 **증가시킬 수 있는 모터 하우징 냉각 기술을 통하여** 신성장 동력 확보 및 부가가치 창출 가능

㈜인팩 ※ 중견기업, ('19년) 매출액 1,248억원, 고용 591명

○ **(배경) 친환경차 시장 성장**에 따라, 기존 구동계 부품 생산 노하우를 기반으로 **전기차 브레이크시스템**(회생제동장치) **부품 개발 추진**

○ **(주요내용)** 차량 주행 시 발생한 운동에너지를 감속 시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배터리에 충전시켜주는 **전기차용 브레이크시스템 부품 생산기술 개발 및 양산라인 구축**

○ **(기대효과) 전기차 배터리 효율 향상** 및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해온 **전기차용 브레이크 시스템의 국산화**

㈜서진오토모티브 ※ 중견기업, ('19년) 매출액 1,341억원, 고용 261명

○ **(배경)** 내연기관 변속기 부품 생산에 주력해왔으나, **친환경차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주력 사업 분야 변경**을 위한 재편 추진

○ **(주요내용)** 내연차의 변속기 기능을 하는 전기차 감속기 부품 개발 및 양산라인 구축을 통해 소형 전기차 및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에 도전

○ **(기대효과) 자체 소음저감 기술**(시중 제품의 25% 수준)을 적용하여 **감속기 기능**을 **개선, 수입 감속기 대체** 및 고성능 전기차 보급 확산에 기여

서진산업(주) ※ 중견기업, ('19년) 매출액 6,878억원, 고용 759명

○ **(배경)** 내연차 차체부품 생산에 주력해왔으나,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라 전기차 원가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배터리 케이스분야로 사업재편** 추진

* 전기차 원가 구성 중 배터리팩 비중은 약 32%

○ **(주요내용)** 다종소재 사용 및 효율적 공정방식 도입을 통해 **안전성**과 **주행 효율성**을 높인 **배터리 케이스 개발** 및 **양산라인 구축**

○ **(기대효과) 배터리 안전성, 주행 효율 개선** 등을 통한 전기차 보급 확산에 기여

인팩이피엠(주) ※ 중소기업, ('19년) 매출액 686억원, 고용 76명

○ **(배경)** 전기차 핵심부품인 배터리 모듈 제조기술을 기반으로 배터리 시스템 분야로 사업 확장을 위한 재편 추진

○ **(주요내용)** 배터리 시스템 내 셀 밀도 향상을 위한 최적 설계기술 개발 및 배터리 시스템 양산을 위한 생산라인 확충

○ **(기대효과)** 에너지 효율이 향상된 배터리 시스템 자체설계기술 개발을 통해 전기차 주행 효율 개선 등을 통한 산업 생태계 고도화에 기여

3. 유망 신산업(3개)

삼양이노켐(주) ※ 중견기업, ('19년) 매출액 2,391억원, 고용 48명

○ **(배경) 석유계 플라스틱 원료**(비스페놀에이, Bisphenol-A, BPA)를 제조·판매하고 있으나, 산업계와 소비자의 친환경 트렌드 대응 필요

○ **(주요내용)** 국내 최초, 세계 두번째로 **바이오 플라스틱 원료**(이소소르비드) 제조 원천기술 개발 성공을 발판으로, 공장 및 설비구축으로 본격 양산 추진

○ **(기대효과)** 바이오 플라스틱 원료(이소소르비드) **제조 기술의 고도화 및 양산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와 글로벌 환경보호에 기여**

엔알텍(주) ※ 중소기업, ('19년) 매출액 273억원, 고용 93명

○ **(배경) 가스터빈 시장이 확대**될 전망에 따라 중·대형 가스터빈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음**을 줄이는 **흡기/배기 시스템 개발 필요성 대두**

○ **(주요내용)** 중·대형 가스터빈에 **소음조건** 등을 만족하는 **흡기/배기 시스템 개발**과 연 10기 생산능력 확보를 위한 **설비 투자 추진**

○ **(기대효과)** 중·대형 **가스터빈 흡기 시스템 국산화**를 통해 가스터빈에 대한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와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산**에 **기여**

㈜카라바스 ※ 소상공인, ('19년) 매출액 2.51억원, 고용 4명

○ **(배경)**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른 기존 사업(체험동물 테마파크)을 정리하고, 발효기술을 활용한 천연물 추출 원료 생산업체로 사업재편 추진

○ **(주요내용)** 실내 동물체험 키즈파크 사업 자산 매각 및 바이오 화장품 원료 생산기술 개발

○ **(기대효과)** 값비싼 원료로 인식되던 인삼 유래성분의 재배 및 추출방식 개선으로 원가 절감 및 우수한 품질의 추출물 생산